

When it comes to Seungjeon, it may be naturally suitable only when focusing on life after becoming a Buddhist monk. However, these Seungjeons suggested by finding out an anecdote in the mundane world such as loyalty to a country and utmost respect for a teacher as a hero's achievements of lifetime before being a Buddhist priest, thereby having shown what a human being's right way is. In other words, the aim of the writings was to be a model for a Confucian follower .

In the middle of being prevalent in a tendency that still treats Buddhist monks as humble and avoids including them as biographical subjects, the attitude toward making a Buddhist monk's life to be biography deserves to be deemed high. However, what emphasizes only their ideology while standing for a title called Seungjeon cannot help it to be considered as Confucian scholars' another discursive oppression .

#### Key Word

Seungjeon in the late Joseon period(朝鮮後期僧傳),

Geomseungjeon(劍僧傳),Hoseongjeon(虎僧傳),

lhwaamnoseungjeon(梨花庵老僧傳), Bumokhanjeon(浮穆漢傳),

Buddhist virtue(佛教的 德性), Confucian virtue(儒教的 德性)

## 불교사회복지실천의 영성관점 확립을 위한 시론

이혜숙

### I. 시작하는 말

1. 논의 목적
2. 논의 방법

### II.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영성관점

1. 역사적 배경
2. 개념 정의
3. 적용과 평가문제

### III. 영성관점의 불교적 조명

1. 논리체계의 불교적 보완
2. 개입기술의 개발
3.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 IV. 끝맺는 말

\* 이 글은 학술진흥재단 BK21사업 지원에 의함.

## 요약문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에 있어서 영성관점은, 1970년대를 전후로 서구사회가 동양사상과 문화를 재발견하면서 기존의 실증주의적·기술지향적 실천에 대한 반성의 한 결과이다. 여타 임상이론들이 인간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비평과 함께, 영성관점은 모든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잠재하는 영적 성품에 주목한다. 그 성품이란, 인간 성장에 스스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본질로서의 영성'이고, 어떤 초월적인 것(혹은 타자)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넓혀 가는 '차원에서의 영성'이다. 영성관점은 인간이 개체적 자아를 넘어서 서로 연관되어 존재함을 깨닫는 전환적 경지를 내포한다. 이는 불교의 '佛性'이나 '緣起法' 교의에 근접한 개념으로서, 필자가 '불교사회복지는 필연적으로 영성관점을 가진다'고 보는 근거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관점에 의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취약점 대신에 강점을 신뢰하며, 클라이언트의 자기초월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영성은 초월적 의미를 가지고 종교와 밀접한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종교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실천에서 적용했던 영적 기법들은 일견 종교적으로 보이는 儀禮나 춤·음악·명상 등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과학적 실증주의자들은 영성관점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하였지만, 점점 다양한 실천기법들이 개발되고 적절한 평가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향후 불교사회복지의 영성관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정 및 개입의 기술·효과적인 적용과 평가·불교이론 적용의 체계화 등을 과제로 삼고, 무엇보다도 실천현장과 긴밀해져야 한다.

## 주제어

영성관점, 평정, 상의상관성, 초개인심리치료, 실증주의, 강점관점, 마음챙김기반, 심리치료

## I. 시작하는 말

### 1. 논의의 목적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이 끊임없다. 수많은 자살 시도와 불특정다수에 대한 危害 등이 그런 예이며, 결과적으로는 직접 상 관도 없는 이웃대중들에게까지 불안과 좌절을 느끼게 한다. 그 때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삶을 달리 살 수는 없었을까. 갈등상황 속에서 불교사회복지는 무엇을 하는가. 이와 관련 해서 본 연구자는 인간이 개별적 자기를 초월하는(transpersonal) 체험과 평정(equanimity)· 상호작용관계(inter-relatedness)의 의미를 추구하는 ‘영성관점’의 사회복지실천을 주목한다.

사회복지 실천이론들 가운데서 영성관점은 일찍이 70년대를 전후 하여 서구사회가 동양문화와 사상을 재발견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영성에 대한 관심의 한 지표로서 미국의 껄립 사(1962)와 시카

고 대학의 조사(1974)가 일반인들에게 ‘종교적 각성’이나 ‘강력한 영적 체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각 20%, 40%가 ‘경험 있다’고 답하였다. 영성이란 말은 주로 기독교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개념은 이제 종교적 울타리를 넘었다. 특정종교의 전용어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관점을 개념화하려는 시도는 영성과 종교를 변별하는 데서 시작되기도 한다.<sup>2)</sup>

서구사회와 그들의 사회복지계가 가졌던 역사적 맥락과 필요성에 의해서 영성관점이 나타났다. 그 자세한 설명은 본문에서 하겠지만, 필자는 영성관점이야말로 원래 불교사회복지의 고유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인간생활의 상의상관적 원리(緣起法)를 말하고, 또한 일상적 자기를 초월하는 최고의 가능성(佛性)과 경지(成佛)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구 영성관점의 형성에 기여한 불교사상이, 정작 불교문화전통을 가진 한국의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사회복지실천에서 불교가 실질적인 지식이 되고 있다면 그 증거는, 이론가의 제안뿐만 아니라 실천가들의 많은 사례 적용과 연구 성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필자는 10여 년 전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영성의 개념화를 시도하였고, 최근에는 종교와 영성에 관련한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sup>3)</sup> 특히 불교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영성관점에

1) Bloomfield, Harold H, Transcendental meditation as an adjunct to therapy in S. Boorstein (ed.), *Transpersonal Psychotherapy*, N.Y.: SUNY Press, 1996, p. 144

2) 조휘일,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영성연구」, 『사회복지실천』 V.5 (서울: 서울여대 사회복지연구센터, 2005), p. 8

3) 拙稿,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문제」, 『불교학연구』 제18호 (서울: 불교

대한 인식과 실천역량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다. 그것이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본고는 서구의 영성관점과 불교교리에서 추론되는 영성관점을 대조하면서 용어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불교계 사회복지실천가들 사이에서 영성관점의 소통과 적용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 2. 논의 방법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활용되는 지식은 대부분 사회과학 및 인접학문의 지식을 포괄한다. 그렇게 다양한 분야로부터 출연한 지식은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주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 패러다임(paradigm)·관점(perspective)·이론(theory)·모델(model) 등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다. 패러다임의 하위수준에 있는 '관점'은 관심영역과 가치·대상들을 규정하는 사고체계로서 개념적 준거틀이다.<sup>4)</sup> 그런 구분을 하지만 이론가에 따라서 혼용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필자는 영성개념을 '관점' 수준으로 사용한다. 영성관점에 입각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험과 성과들을 확인하면서 점차 구체적인 '이론'으로 성립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은 서구에서 형성된 영성관점의 역사적 배경과 용어 개념,

적용실천에 대한 그간의 평가 등을 소개한다. 이는 선행연구 검토의 성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연구물이 그리 많지 않다. 흔히 기독교계의 연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종교학의 '영성'이 아닌 사회복지학에서의 '영성관점'을 다루는 것은 실상 드물다. 임상 서비스 분야에서 간호학과 상담심리학 등의 연구를 제외한 사회복지 논문은 10여 편에 불과하고, 학술지 논문도 비슷한 양이다.<sup>5)</sup>

선행연구나 이론적 배경에서 이 점을 감안하고, 제3장은 영성관점을 불교교리에 입각해서 논의한다. 불교계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삶에 개입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두고, 불교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영성관점의 확립에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영성관점

### 1. 역사적 배경

동서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실천의 뿌리는 종교적 전통에 닿는다. 종교기관은 사회 서비스의 후원자였으며, 역사상 자선조직협회나

학연구회, 2007), pp. 319—343 ; 「임상사회복지에 있어서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1996)

4) 홍선미,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과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pp. 198—199

5) 예컨대, 국회도서관 전자DB 분석질의어로 '영성'을 검색하면 총 학위논문 1062건, 학술지 논문 950건의 자료가 나타나는데, 그 중 간호와 상담심리치료 등을 복지서비스로 포함시켰을 때 각 30편 정도가 된다. <http://u-lib.nanet.go.kr:8080/gl/ViewApply.pho> 2009년 2월 현재.

지역봉사관의 초기 사회사업가들은 종교적·영적 사명감을 공유하였다.<sup>6)</sup> 영성관점이 태동한 미국사회에서는 20세기 초까지 기독교와 유대교의 사회봉사와 공공복지정책에의 기여가 있었고, 종파주의적인 경향이 있었다.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사회사업이 전문화된 시기로서, 기존 사회사업에서 토대가 되었던 종교적 신념들 대신에 전문지식과 과학적인 관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교회와 정부가 분리되고자 했고, 미국사회사업가협회(NASW)와 사회사업교육협의회(CSWE)를 통해서 사회사업가들은 원칙적으로 종교에 차별 없는 전문가의 역할을 배우게 되었다.<sup>7)</sup>

영성에 대한 관심의 부활기는 1980년대 이후이다. 이미 70년대 소위 뉴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과 함께 다양한 종교와 비종파적인 신비주의·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적 사고 등이 혼합되어 영적 영향력은 여러 분야에서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동양의 참선과 실존주의 등이 사회복지실천의 장에 수용되면서 신앙과 상관없는 영성관점이 나타났다. 결국 1995년과 2001년 미국 CSWE의 교과목지침과 인가표준<sup>8)</sup>은 사회복지사들의 문화다양

성에 대한 역량을 교육하고 실천 프로그램에서 그 역량을 평가하도록 요구했다. 문화다양성이란 종교적·영적 다양성과 통하는 개념이다.

오늘에 이르는 역사를 보더라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교와 영성관점이 완전하게 분리될 수는 없었다. 종교가 사회복지실천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한편 그 서비스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선교하는 방편을 삼는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sup>9)</sup> 혹은, 다종교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부응하기 위하여 특정한 제도종교는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보편적인 영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2. 개념 정의

Payne 에 의하면, 영성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각자가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세상을 인정한다는 입장에서 영성관점을 인본주의 범주에 분류<sup>10)</sup>하기도 한다. Carroll 은 근본적으로 종교와 영성을 구분하고, 영성관점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한다. 인간의 완전성을 바탕으로 발전과 변화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본질’(essence)로서의 영성과,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것 혹은 타자와 상호연결됨을 각성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차원’(dimension)으로서의 영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보적인 관계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sup>11)</sup>

6) Russel, Robin.,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graduate social work education in Edward R. Canda(e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 New directions*, N.Y.: the Haworth Press, 1998, p. 16, Leiby, J. Moral foundation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 A historical view *Social Work*, 30(4), 1985, pp. 323—330 재인용.

7) Canda, Edward R. & Furman, Leola Dyrud,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 The Heart of Helping*, N.Y.: the Free Press, 1999, pp. 87—90

8)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Handbook of accredi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lexandria, VA: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5;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2001 <http://www.cswe.org/accreditation/EPAS>

9) 앞의 拙稿(2007): 사회복지실천에서 종교와 영성에 관한 찬반논의를 소개하고 있음.

10) Payne, Malcom, *Modern Social Work Theory*, N.Y.: Palgrave Mcmillan, 2005, p. 184

11) Carroll, Maria M. Social work's conceptualization of spirituality in E. R. Canda (ed.),

Grof도 영성과 종교를 구분하였는데, 영성은 특정한 종교적 도구나 성서와 같은 대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라 한다. 이런 경험에서의 영성은 세상에 대한 해석이나 신념의 문제를 넘어서 '깊은 알아차림'이다. 또한 영성에는 인성의 변화와 치유의 중요한 메카니즘이 존재한다<sup>12)</sup>는 것이다.

Canda와 Furman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영성이란, 첫째, 인간에게 본래 가치가 있고 신성하며 환원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전일적인(holistic) 성품이다. 둘째, 개인이나 집단이 타자(신이나 궁극적 실재를 포함)와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윤리적인 틀 등을 다루는 측면이다. 셋째, 초개인적인 본성의 특별한 체험이다. 넷째,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타자와 함께 온전함(a sense of wholeness)을 향해가는 성장과정이다. 다섯째, 공식적인 종교조직이든 아니든 간에 영적으로 지지적인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맥락에서 기도와 명상과 같은 특수행동과 특수신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3)</sup>

이상과 같은 이론가들의 개념정의를 종합하자면, 영성이란 우선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영성은 단순히 초월적 신비주의나 비밀

스런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종교에 대한 신앙심이나 종교기관에 출석하는 빈도자체와 관련되지 않는다. 예컨대 무신론자라도 깊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sup>14)</sup> 영성은 인간이 일상적인 자기를 초월하고 성장하는 능력의 바탕이라는 의미에서 초개인심리학의 주제이며, 인간이 모든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기경험의 현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존주의적인 것이다.

### 3. 적용과 평가문제

사회복지실천에서 이론개발은 서비스 원리와 변화 과정 등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실천과정의 변수들에 대하여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문화의 요구와 함께 그동안은 과학적 방법론이 대세였다.

과학의 입장으로 보면, 세상과 인간에게는 객관적 진리가 있고 그것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되며, 과학적 방법이란 그런 보편지식을 상정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인간행동을 한 묶음의 구성요소들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음<sup>15)</sup>을 지적하였다. 인간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속성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을 토대로 하는 전문가들은 인간사를 다루는 자신의

*Spirituality in social work : new directions*, N.Y.: The Haworth Press, 1998, pp. 8-9 ; Carroll, Maria M. Conceptual models of spirituality In E. R. Canda & E. D. Smith(eds.) *Transpersonal perspectives on spirituality in social work.*, N.Y.: The Haworth press, 2001, pp. 16-17

12) Grof, Stanislav,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in S. Boorstein (ed.). *Transpersonal Psychotherapy*. N.Y.: SUNY Press, 1996, pp. 47-48

13) Canda, Edward R. & Furman, Leola D., 1999, p. 115

14) Boorstein, Seymour. 편저, 『자아초월 정신치료』, 정성덕·김익창 공역 (서울: 하나의 학사, 1997), p. 162

15) Howe, David, 『社會事業理論入門』, 장 인협 감역 (서울: 집문당, 1992), pp. 159-160

직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실용주의적이고 기법중심의 서비스 기술자가 되어 온 것이다.<sup>16)</sup> 영성관점이 홀대를 받는 경우도 객관적 인식론과 과학적 방법론 등의 실증주의적 경향에 관련이 있다. 실증주의자들은 영성관점이 모호하고 적용기술이 엄격하지 않으며 효과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어떤 입장에서든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역할의 책임성·기술의 효과성·이론의 체계성 등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영성관점의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영성을 고양하는 것이 기본과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영적 경향성이나 민감도를 점검하는 도구와 기술이 필요하고,<sup>17)</sup> 서비스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정과 평가의 기법이 필요하다. 예컨대, 2001년 미국의 JCAHO(the Joint Commission on the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는 보건기관들의 인가조건에서 영적인 사정(spiritual assessment)에 대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이는 클라이언트에게 문화적으로 민감한 서비스를 할 것과 클라이언트를 도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자원과 강점을 확인하라는 취지이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은 영적 사정에 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Hodge는 위의 JCAHO의 표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Spiritual Life—map(2005: 생애주기와 굴곡을 따라서 생애사연과 영성의 작

용을 그림으로 표현)·Spiritual Ecomap(2000: 현재의 종교적·영적 자원관계를 표시)·Spiritual Genogram(2001: 3세대의 종교적·영적인 가계전승을 색칠로 구별하고 교단 가입이나 관련활동의 시기를 표시)·Spiritual Ecogram(2005: 생태체계도와 가계도를 응용하여 도면의 상반부에 영적 역사를, 하반부에 현재의 영적 자원 등을 표시) 등 사정의 도구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고, 클라이언트의 영적 역사를 질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Canda와 Furman의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종교와 영성이 클라이언트에게 강점이 된다고 응답하였고(각 66%/86%), 약점이 된다는 응답은 종교(26%) 영성(18%)라고 나타났다.<sup>18)</sup> 아울러 영적 실천을 위한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영적 다양성을 가진 다문화적 협력, 개인의 초월적인 경험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조,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영적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Canda는 개인에 대한 임상적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sup>19)</sup> 기법의 주요소는 클라이언트의 영적 성장에 즉각적인 이로움이 있어야 하며, 초개인적인 경험들을 포함하고, 사람들이 수행하기가 간단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되, 특정종파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며 비종파적이어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위험성이 낮은 행동이어야 한다. 주의집중 하기·의도적인 호흡·평형 잡기·일관성 유지·긴장이완·신체 돌보기·儀禮 실시·용서하기 등이 그것이다.

16) Payne, Malcom, 2005, pp. 163—164

17) Hodge, David R, 2007; Boyle & Springe, 2001; Furman et. a.l, 2004

18) Canda, Edward R. & Furman, Leola D., 1999, p. 283

19) Canda, Edward R. & Furman, Leola D., 1999, pp. 290—304

### III. 영성관점에 대한 불교적 조명

#### 1. 논리체계의 불교적 보완

영성관점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를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다.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정의 기반인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복지실천과정은 달라져야 한다. 불교의 영성개념은 원론적인 면에서 본디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다. 서구에서 영성관점이 부활하는데 촉매가 되었던 것이 바로 불교문화였다. 그러나 지역 간, 세대 간에 사상이나 문화의 전이는 원형 그대로 될 리가 없다. 영성관점이 불교적인 것일 뿐 불교 그 자체는 아니며 더욱이 서구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응용된 불교개념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 영성관점을 불교교리에 입각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Carroll이 분석한 7가지 영성개념들<sup>20)</sup>을 요약하자면, 첫째가 자기 초월적 개념이다. 개개인 현실의 궁극적 토대가 되는 어떤 것 혹은 초월자와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초월적 연계에 대한 설명이다. 둘째는 인간의 생리-심리-사회적 측면에 관한 본성이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잠재력이며, 누구나 타고난 성품을 뜻한다. 세 번째는 앞의 두 성품이 상보적인 관계에서 '온전함', '온전한 인간'을 추구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영성관점이 임상치료적인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정상/

20) Carroll, Maria M. 2001, pp. 7-13

비정상 발달개념이나 장애인론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의 결함에 주목하는 종래의 병리적·진단적 인간이론들과 달리,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경험과 주체적인 생애의 의미추구를 중요시한다. 행동변화는 전문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수행처럼 클라이언트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대내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영성을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활성화(mobilize)함으로써 변화를 달성한다<sup>21)</sup>고 본다.

다른 연구사례에서<sup>22)</sup> 영성은 평정심(Equanimity)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위기에서 희망을 보는 힘과 안녕감, 인류에의 깊은 연대감(ego-centric이 아니라 world-centric) 그리고 고양된 의식으로서 고요·평화·집중(centeredness)·자기 초월·자비 등 정서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미국에서 2003년도에 46개교 대학생 3700명의 파일럿 조사를 거치고, 2004년도에 236개교 11,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서의 영성발달"에 관한 조사에서 각 개념의 신뢰성 등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지표들이다.

이렇듯 서구의 영성관점이 인간존재의 상호연관성과 변화 가능성 그리고 평안한 마음작용에 대해서 주목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깊이를 구성하는 논리체계가 빈약하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상의상관성을 규명하는 교의가 가르침의 근본이니만큼 더욱 체계적이다. "연기는 조건을 짓는 법이고 연기법은 조건을 따라 생긴

21) Besthorn, Fred H. Natural strengths and ecological alienation, considerations for family practice: linking eco-spiritual helping and solution-focused therapy unpublished manuscript. IA: Univ. of Northern Iowa, 2003, p. 2

22) Astin, Alexander W, & Keen, James P, Equanimity and spirituality *Religion & Education* 33(2), Univ. of Iowa, 2006, p. 2



법이며, 이때 조건 짓는 법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성취시키는 고유한 힘이 상호의존(성)이다. 모든 것이 조건의 화합에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거나, 원인 없이 생긴다거나, 다른 원인에서 생긴다거나, 지배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주장 등은 옳지 않다<sup>23)</sup>는 것이다. 소위 연기법은 어떤 절대자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존재법칙으로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적용되고 누구나 통찰수행을 하면 알게 되는 이치라고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는, 서구 영성관점이 절대자를 향한 수직적 관계를 상정하거나 인간존재의 여러 차원들(bio-psycho-social-spiritual dimension) 중에 하나로 영성을 상정한다는 점이다.<sup>24)</sup> 아마도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지고한 절대자를 상정하고 인간이 그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습관적인 인식일 듯싶다. 하지만, 불교에서 연기법이나 상호의존에 대한 각성은 것처럼 어딘가에 상대 가치를 정하고 그것과 상하관계의 성격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된다. 불교에서 영성은 마치 각자가 갇혀 있던 방문을 열고 더 넓은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로 소통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 점에서 불교적 영성관점은 클라이언트가 평소의 삶에서나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자주적이고 대등한 정체감을 갖도록 의식을 고양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는 삶을 전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습관으로부터

23) 저자 미상, 『아비담마 길라잡이』(하), 각목스님·대립스님 역해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4), pp. 650-657

24) 각주 19) 참고

초월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다. 수행을 통해서 신자가 성불을 하고 혹은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교리야말로 가장 긍정적인 강점관점(Positive/Strengths Perspective)이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 내용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처님의 설법이 "의미있는 변화"를 가르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 특별한 점은, 그런 변화와 성취가 개개인 스스로의 잠재력을 각성하고 자력수행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내용에 있다. 사회사업가와 같은 보살의 조력자 역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교의 기초는 자력성취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관점을 포함한 인본주의적 이론들이 전문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주의를 지향한 배경과도 통한다.

영성이 전인적이고 온전한(holistic, whole)존재를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불교적 개념으로 보면, 전일성이란 생리-심리-사회-정신의 모든 차원에서 구애된 바 없이 본래적인 원만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ssagioli의 통합정신치료법(psychosynthesis)에서 인격통합 역시 개인(personal) 성장과 초개인적(transpersonal) 성장을 통합시키는 개념으로서 불교적 접근법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가진다<sup>25)</sup>고 한다.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五蘊 즉 모든 마음의 작용들(受想行識)과 몸(色)의 대립이 사라지고 상대적인 목표도 사라지고 공(空)하므로 자연히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장 온전한 하나는 무아일 것이다.

25) Firman, John & Vargiu, James G. Personal and transpersonal growth, the perspective of psychosynthesis in S. Boorstein (ed.). *Transpersonal Psychotherapy*, N.Y.: SUNY Press, 1996, pp. 117-118

## 2. 개입기술의 개발

인본주의·실존주의와 마찬가지로 영성관점은 사회복지실천이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고 전문가주의로 발전되어온 경향에 비판적이다. 따라서 특수한 실천기법들을 개발하는 대신 클라이언트에게 익숙하고 생활 속에서 실행하기 쉬운 영적 의례(rituals)들을 수용하는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 예컨대, 기독교의 피정·기도·불교의 명상·만다라·요가·북치기·음악·춤 등이 이용된다.

서구 전문가들은 영성관점의 적용사례를 평가하였다. 즉, 성공적인 노화과정·만족스런 결혼생활·대인간의 우정·유연성·대처능력 등이 영성과 정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물질남용의 감소·이혼 후유증의 회복·노숙자상태의 회복·성폭행에서의 회복 등과 영성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sup>26)</sup> 사회복지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심리치료사 및 정신치료사의 임상사례에서는 주로 초개인 심리학과 함께 치료적인 측면의 영성관점이 연구되고 있다.

Boorstein 편저 *Transpersonal Psychotherapy*(1996)에서는 서양의 정신치료와 동양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초월명상치료’, ‘게슈탈트 치료와 불교’, ‘마음챙김 명상과 심리치료’, ‘명상과 정신건강’, ‘수피즘과 정신의학’, ‘변화와 깨달음’, ‘영적 통찰의 잠재력과 한계점’ 등 28 편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Cowley<sup>27)</sup>는 영성관점의 초개인 심

리치료를, Keefe<sup>28)</sup>는 사회사업에서 명상의 이론적 배경과 치료 작용 및 여러 종류의 명상법을 설명하고 있다. Brandon은 그의 책 *Zen in the art of helping*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참선수련의 좋은 영향들을 설명하고 있다.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자인 Segal·Williams·Teasdale 등<sup>29)</sup>의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8단계에서는 자동조종·방해요인 다루기·마음챙김 호흡하기·현재에 머물기·허용하기·생각 다루기·자신 돌보기·앞을 내다보기 등의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1970년대부터 Kabat-Zinn<sup>30)</sup>이 해온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법(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또한 Germer·Siegel·Fulton이 편집한 책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2005)에는 총 13편의 논문이 실려 마음챙김 명상을 치료에 접목하는 이론과 여러 가지 적용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Epstein은 *Thoughts without a thinker*(1995)<sup>31)</sup>에서 불교의 기초교리를 소개하고 뒤에 정신치료 적용사례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불교적 영성관점은 서구에서 주로 명상을 통해 접근해 왔으며, 사회복지 분야보다도 심리학과 정신의학·간호학 등에서

26) 조휘일, 2005, p. 14

27) 오딘 코울리, 「자아초월주의 사회복지」, 장승옥 역,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나남출판, 2004), pp. 737-770

28) 토마스 키이프, 「명상과 사회복지 개입」, 신혜중 역,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나남출판, 2004), pp. 489-516

29) 진델 세갈·윌리엄스 마크·존 티스데일 공저, 이우경·조 선미·황태연 공역,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 (서울: 학지사, 2006), 참고

30) Kabat-Zinn, Jon.,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Y.: Dell Publishing, 1990, 참고

31) 웹스타인 저, 전 현수·김 성철 공역, 『붓다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참고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적용방법이 명상치료가기는 하지만, 그들의 명상이 과연 불교적인지, 불교적 영성관점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여기서 논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서비스 평가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얻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명상치료 외에도 불교문화전통 가운데 사회복지실천에 당장 응용해볼 것이 몇 가지는 더 있다. 향후 실천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미술치료 성격의 탕화·만다라 그리기가 있고, 108배의 심신효과도 확인된 바 있으므로 행동치료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해볼 만하다. 사회복지사의 직무향상을 위한 자기관리기술로서 보살도·사섭법과 같은 수행법을 응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본 연구자는 명상과 같은 영적 방법들이 대체로 개별적이고 치료중심적인<sup>32)</sup>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에 대해서 우려한다.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적 영성관점은 그 바탕이 되는 교리(연기법)를 생각해볼더라도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변화도 함께 도모하도록 하는 근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문제가 곧 사회 문제이며 사회문제가 곧 개인문제라는 인식으로 개인적—집합적—생태적—영적 전망을 회통하는 실천방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적 영성관점의 핵심과제라고 생각된다.

32) (individualistic—therapeutic) Payne, Malcom. (2005), p. 181

### 3.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불교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고유한 영성관점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찾아보기가 아직은 어렵다. 연구의 쟁점이란 연구물이 누적되고 현장 적용의 경험이 많아져서 다양한 주장이 있을 때 생겨나는 과제일 것이다. 우리의 현장이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도 영성관점과 불교사회복지에서 필요한 연구와 실천의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첫째, 사정(assessment)에 관한 문제이다. 종래의 사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를 다루는 것이 자칫 종교적 차별을 야기하게 될까 조심스러운 부분이였다. 하지만 영성관점에서는 종교적 질문이 포함된 사정도구가 사용되기도 한다. Limb과 Hodge의 경우,<sup>33)</sup> 클라이언트가 특정종교에 가입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조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나, 생애사건에서 종교적·영적 신념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어떤 영적인 의례행위를 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종교나 영적 공동체의 지지가 클라이언트의 외부자원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적 강제와 같은 것 없이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성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목해야 할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 범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개입을 위한 사정이나 목표설정

33) Limb, G. E. & Hodge, David R. Developing spiritual life—maps as a culture—centered pictorial instrument for spiritual assessments with native american client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2), 2007, pp. 296—304

에서도 '클라이언트 중심'이다. 이 점은 Rogers의 인본주의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고유한 경험에 대해서 외부자인 사회복지사 중심의 진단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Fischer<sup>34)</sup>의 분석 지표에 의하면, 영성관점이 인간관계(interpersonal)에 대한 행동을 강조하는지, 심리내적인(intra—psychic) 행동을 강조하는지를 구별하게 된다. 또한 영성적 개입의 목표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변화를 우선으로 하는지, 자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개입 기술의 문제이다. 서비스 개입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의 특수한 체험과 자기발견적 통찰을 사회복지사 자신이 주도해갈 수는 없다. 다만, 개입초기부터 클라이언트가 이해하도록 개입의 가치를 명확하게 밝히고, 전 과정과 프로그램들에 관한 설명을 하되, 지시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 종교적 전통에서는 간혹 엄격하게 지시적인 지도자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영성관점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그와 다르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세상에 대한 지혜를 함께 접근한다는 자세를 갖는다. 더 나가서 영성관점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생애에 또 다른 스승으로 생각해야 한다<sup>35)</sup>고 말한다. 클라이언트의 영적 성장을 원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평소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영적 민감성을 높이는 수련을 할 필요가 있다.

34) Fischer.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clinical theories of induced change. *Social Service Review* 45(4), 1971, pp. 440—454

35) Derezotes, David S.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CA: SAGE, 2000, p. 124

셋째, 적용에 효과적인 대상선정의 문제이다. 영성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선천적 능력이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총체성과 완전성을 추구하는 에너지라고 본다. 그같이 선천적인 영성일지라도, 마치 씨앗이 좋은 환경에서 잘 받아하듯이, 성장에 더 좋은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영적 실천에서도 적용의 대상이나 범주에 따라서 성과에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그동안 특히 이민자·소수민족·성적 소수자·시한부 생존자·여성 약자·PTSD 생존자·HIV·각종 중독자·만성질환자·난치성 질환자·흡리스·교도소 수감자·노인·위기아동·자살 생존자·퇴역군인 등을 대상으로 원조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실천의 개입 프로그램이나 기법에서 논리적이고 인지적인 학습과정이 있다면 아무래도 지적이고 성인인 경우에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이와 같은 형태의 儀禮 프로그램이나, 명상과 같은 기법은 오히려 '言語道斷'의 이치로서 논리를 버리고 생각하는 마음을 쉬도록 하는 것이 방법상 초점이므로 어린이에게도 가능한 것이 된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클라이언트가 영성적 실천에서 나온 성과를 내는지 일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넷째, 이론적용상 체계화의 문제이다. 앞으로도 영성관점이 하나의 확립된 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상을 상징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개념(concepts)·경험적인 사실(facts)·경험과 사실들의 관계를 예측하는 가설(hypotheses)·가설 검증의 결과로써 현실을 해석하고 믿을 만한 원리(principles)를 갖추도록 요구될 것이다.<sup>36)</sup> 이와

36) Turner, Francis J. Theory in social work practice In F. J. Turner(ed.), *Social Work*

같은 요구가 다분히 실증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이지만 무조건 도외시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실천은 평가되어야 하고 효과와 효율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성관점에 적합한 평가의 틀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필요한 과제라 하겠다.

#### IV. 맺는 말

오늘날 불교철학이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식이 되지 못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영성관점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여러 수준의 지식이란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기관·연구자·정부·압력단체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지식은 인간의 본성·사회환경·제도와 정책 등의 조건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란 사회복지실천 분야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내적으로 합의된 이해의 표상이며,<sup>37)</sup> 또한 거기에는 경쟁적 관계에 있는 입장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치적 역학관계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 점을 이론의 정치학<sup>38)</sup>이라고 Payne은 명명하였다.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포괄적 가치체계와 개인적 경

험으로부터 활동의 지침이 되는 비공식적 이론을 구성하게 되는데, 적용이란 비공식적 이론 내에서 공식적 이론이 더 큰 영향력을 획득하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공식적 이론 내에서 비공식 이론의 유래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sup>39)</sup>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공식적 이론과 비공식적 이론의 내용관계는 어떠할까? 우리 사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에 대한 신뢰가 적고 오히려 서구에서 기대가 컸던 것 같다. 사회복지실천의 토대인 임상이론들 가운데 불교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은 영성관점은 물론, 구성주의·실존주의·인본주의·초개인 심리학 등 親불교적 이론들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한 한국불교와 사회복지실천에 관련하여, 이 글은 불교계에서 영성관점의 소통을 위하여 징검다리가 되고자 한다. 영성 관점은 서구 사회복지실천의 반성과 개선을 위한 하나의 처방이었던 셈인데, 특히 지나치게 객관 실증주의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실천에 대한 비판이었다. 인간존재는 스스로 초월적인 역량(차원으로서 영성)이 있고 스스로 변화와 치유의 에너지(본질로서의 영성)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영성관점은 종교와 밀접한 속성을 가졌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영성관점은 종교적 의례와 유사한 집단기법들을 차용하는 경향이 있고, 심리학·정신의학·간호학 등에서는 일찍이 명상과 같이 심리치료적인 임상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관점은 원론적으로 훨씬 체계화되어

---

*Treatment* (3rd.), N.Y.: The Free press, 1985, p. 2

37) 말콤 페인, 2001, pp. 60-61

38) Payne, Malcom, 2005, p. 26: 임상이론들의 역학관계를 '정치학' 항목에서 별도로 설명함.

---

39) 말콤 페인, 2001, p. 87

있다고 본다. 불교계 자체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적용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서구의 그것과 차이점도 있다. 불교적 영성관점의 핵심은 상의상관성(緣起)과 자기초월적 성장능력(佛性과成佛)이며, 클라이언트를 포함하여 모든 존재들이 본래의 자리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목표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병리적 상태의 '치료' 절차가 아니라 전환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이다. 영성은 긍정관점이다. 기존의 영성관점이 개인적·치료적 목표를 갖는 것에 비해서 불교적 영성관점은 집합적·전환적 변화의 목표가 있다.

영성관점의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로는, 사정(assessment)에서 종교와 영성의 적절한 적용·영적 개입의 기술·적용에 효과적인 대상과 그 이해·이론 적용상 체계화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라면 반드시 실천현장과 상호작용이 있는 가운데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문헌연구로 이루어진 데 본고의 한계점이 있다.

## 참고문헌

- Astin, Alexander W & Keen, James P, Equanimity and spirituality Religion & Education 33(2), Univ.of Iowa. 2006, pp. 1—8.
- Besthorn, Fred H. Natural strengths and ecological alienation, considerations for family practice: linking eco—spiritual helping and solution—focused therapy unpublished manuscript, IA: Univ. of Northern Iowa, 2003.
- Bloomfield, Harold H, Transcendental meditation as an adjunct to therapy in S. Boorstein (ed.), Transpersonal Psychotherapy. NY: SUNY Press, 1996, pp. 143—163.
- Boyle, David P. & Springer, Alyson, Toward a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social work with specific populations Journal of Ethic and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9(3/4), 2001, pp. 53—71.
- Brandon, David, Zen in the art of helping, NY: Arkana, 1976.
- Canda, Edward R & Furman, Leola D,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 The Heart of Helping, NY: the Free Press, 1999.
- Carroll, Maria M, Conceptual models of spirituality In E. R. Canda & E. D. Smith (eds.), Transpersonal perspectives on spirituality in social work. NY: The Haworth press, 2001, pp. 5—21.
- \_\_\_\_\_ Social work's conceptualization of spirituality in E. R. Canda (e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 new directions, NY: The Haworth Press, 1998, pp. 1—13.
- Derezotes, David S,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CA: SAGE, 2000.

- Firman, John & Vargiu, James G, Personal and transpersonal growth, the perspective of psychosynthesis in S. Boorstein (ed.), Transpersonal psychotherapy, NY: SUNY Press, 1996, p. 117—142.
- Fischer, Joel,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clinical theories of induced change Social Service Review 45(4), 1971, pp. 440—454.
- Furman, Leola D., Benson, Pery W., Grimwood, Cordelia, & Canda, Edward R.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education and direct practice at the millenium: A survey of UK social work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4, 2004, pp. 767—792.
- Griffin, David R. (ed), Spirituality and Society, NY: SUNY Press, 1988.
- Grof, Stanislav,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f transpersonal psychology in S. Boorstein (ed.), Transpersonal Psychotherapy, NY: SUNY Press, 1996, pp. 43—64.
- Hodge, David R, The spiritual competence scale : A new instrument for assessing spiritual competence at the programmatic level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2), 2007, pp. 287—295.  
 \_\_\_\_\_ Spiritual life—maps: a client—centered pictorial instrument for assessment, planning and intervention Social Work 50(1), 2005, pp. 77—87.  
 \_\_\_\_\_ Spiritual ecomaps : A new assessment instrument for identifying clients' spiritual strengths in space and across time Families in Society 86(2), 2005, pp. 287—296.  
 \_\_\_\_\_ Spiritual genograms : A generational approach to assessing spirituality Families in Society 82(1), 2001, pp. 35—48.  
 \_\_\_\_\_ Spiritual ecomaps : A new diagrammatic tool for assessing marital and family spiritual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6(1), 2000, pp. 229—240.
- Kabat—Zinn, Jon,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Y: Dell Publishing, 1990.
- Leiby, James, Moral foundations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 A historical view Social Work 30(4), 1985, pp. 323—330.
- Limb, Gordon E. & Hodge, David R, Developing spiritual life—maps as a culture—centered pictorial instrument for spiritual assessments with native american client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7(2), 2007, pp. 296—304.
- Payne, Malcom, Modern Social Work Theory(3rd.), NY: Palgrave Mcmillan, 2005.
- Russel, Robin,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graduate social work education in E. R. Canda (e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 New directions, NY: the Haworth Press, 1998, pp. 15—29.
- Turner, Francis J. Theory in social work practice In F. J. Turner (ed.), Social Work Treatment (3rd.), NY: the Free press, 1985, pp. 1—18.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Handbook of accredi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lexandria, VA: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1995;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2001 <http://www.cswe.org/accreditation/EPAS>  
 · <http://u—lib.nanet.go.kr:8080/dl/ViewApply.php> 한국 국회도서관

- 세이무어 부어스타인, 『자아초월 정신치료』, 정성덕 · 김익창 공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7.
- 세갈, 윌리엄스 & 키스데일,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 이우경 · 조선미 · 황태연 공역, 서울: 학지사, 2006.
- 마크 앰스타인, 『붓다의 심리학』, 전 현수 · 김 성철 공역, 서울: 학지사, 2006.
- 이혜숙,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종교와 영성문제」, 『불교학연구』 제18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7, pp. 319—343.  
 —— 「임상사회복지에 있어서 Spirituality 개념화를 위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저자 미상, 『아비담마 길라잡이(하)』, 각묵스님 · 대립스님 역해,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4.
- 조휘일,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영성연구」, 『사회복지실천』 V.5, 서울여대 사회복지연구센터, 2005, pp. 5—20.
- 토마스 키이프, 「명상과 사회복지개입」; 오딘 코올리 「자아초월주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이론의 이해와 적용』, 연세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서울: 나남출판, 2004.
- 말콤 페인, 『현대사회복지실천이론』, 서진환 · 이선혜 · 정수경 공역, 서울: 나남출판, 2001.
- 홍선미,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과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서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pp. 195—214.

## A study on the spirituality—perspective in the practice of Buddhist social work

Lee, He-sook

The spirituality—perspective among modern 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resulted from the West's rediscovery of Eastern culture and religion. It was a kind of reaction to the positivist's technique—oriented social work. As Spirituality has been increasingly considered essential to understanding the whole person, descriptions of it contained various themes. One theme is a person's extreme experience with a transcendent dimension of reality. The other refers to spirituality originating from the deepest potential of the person. Spirituality—perspective has an open—endedness to the client's development subjectively. It seems Buddha and Nature are interrelated with one another, mostly in transcendental transformation. Although positivist social workers and scholars have criticized the spirituality—perspective as being vague for a theoretical base of social work practice, various intervention techniques have developed. Aside



from social work, the spirituality has the tendency to be more therapeutic in areas such as psychiatry, psychology, and nursing. In the case of Buddhist social work, spirituality anticipates more in-depth applications than any other clinical theory. However, the progress is dull in reality. Even though the theoretical system of spirituality has been built in principal, there is a lack of application in fields and so in reality, feedback cannot be obtained from experiences. Here I emphasize that Buddhist social work practice based on spirituality needs to stud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kills more and to have a more preferable target population and a theory systemic applying to the fields.

#### **Key Word** \_\_\_\_\_

Spirituality-perspective, Equanimity, Inter-relatedness,  
Transpersonal psychotherapy, Strengths- perspective,  
Mindfulness-based psychotherapy, Positivism

##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성 연구

정해성(각정)  
중앙승가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개념적 논의와 분석틀
- III. 산사음악회의 분석
- IV.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
- V. 결론